

# 『조선동서편목규칙』을 통하여 본 박봉석의 사상\*

## Bong Suk Park's Philosophy in Korean Cataloging Rules for Oriental Books

정 옥 경 (Ok Kyung Chung)\*\*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도서관계의 선구자인 박봉석에 대한 도서관 사상의 조명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가 편찬한 조선동서편목규칙에서 새롭게 정립한 사항과 그 속에 나타난 그의 사상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조선동서편목규칙의 편찬배경, 구성 및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조선동서편목규칙의 비판과 한국목록규칙의 탄생과 변천사항을 살펴보았다. 박봉석이 한국도서관계를 위하여 일한 시기는 1945년 해방에서 1950년 한국전쟁까지 5년 동안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한국 도서관계를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그의 업적과 사상을 조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박봉석이 조선동서편목규칙에서 새롭게 정립한 규칙과 그의 사상과 정신을 조명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Bong Suk Park's thought and spirit in Korean Cataloging Rules for Oriental Books for illumination and reevaluation of Bong Suk Park's library philosophy that was a pioneer of Korean library. The study examined a compilation backgrounds, configur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ataloging Rules for Oriental Books. A criticism of Korean Cataloging Rules for Oriental Books, creation and change process of Korean Cataloging Rules were examined. Though Bong Suk Park was worked from 1945 to 1950 for five years for Korean Library, he made a lot of contributions to Korean library. Based on this, the study examined the Rules, his thoughts and spirit in Korean Cataloging Rules for Oriental Books.

키워드: 박봉석, 조선동서편목규칙, 편목규칙, 한국목록규칙, 도서관사상  
Bong Suk Park, Korean Cataloging Rules for Oriental Books, Cataloging Rule,  
Korean Cataloging Rules, Library Philosophy

\* 이 논문은 2012년 제49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kchung@incheon.ac.kr)

논문접수일자 : 2012년 11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12월 17일

## 1. 서론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선구자였던 박봉석은 암울했던 일제식민지시대에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서로 재직한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목록규칙인 『조선동서편목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는 8.15해방을 맞으면서 일본인으로부터 총독부도서관을 인수받아 문헌수집대를 조직하여 당시 귀중한 인쇄자료와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 당시 혼란의 와중에서도 한국도서관계의 여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였으며, 국립도서관장으로 이재육을 초빙하고, 박봉석은 부관장을 맡아 국립도서관의 정비에 전념하였다.

그 당시는 해방 직후인 관계로 모든 질서가 잡히지 않아 혼란스러웠으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목록규칙 및 분류표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때였다. 특히 도서관을 운영할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1946년 국립도서관 부설로 조선국립도서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당시 박봉석은 이 학교에서 도서분류법과 동서편목법, 서지학 등의 과목을 맡아 직접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교육에 필요한 우리말 교재와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규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분류표와 편목규칙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분류표와 목록규칙인 『조선십진분류표』와 『조선동서편목규칙』이었다. 동서편목규칙은 한국목록규칙이 간행되기 전까지 우리 도서관계의 표준 정리도구로서 사용하였다. 그 당시 오늘날과는 달리 도서관학을 연구한 분들이 거의 없었던 때였으므로 『조선십진분류표』와 『조선동서편목규칙』은 도서관계

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박봉석이 해방과 전쟁이라는 혼란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서관인 이라는 철저한 직업의식과 사명감, 철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그가 도서관을 위하여 해오던 모든 일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후학들에게 계승되지 못하였던 것은 박봉석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서관계에도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8.15해방부터 1950년 6.25동란까지 불과 5년의 짧은 기간 동안 박봉석이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기여한 업적은 미국의 Dewey나 인도의 Ranganathan과 비교될 만큼 훌륭하다. 그들은 그 국가와 세계 도서관계에 기여한 대표 인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박봉석은 한국의 도서관계에서 그들과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7월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문화훈장 서훈 후보자로 박봉석을 추천하여 국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서훈케 하였고, 2012년 10월 18일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박봉석의 도서관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한 '도서관상'의 제정을 제안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도서관계의 선구자이며 개척자인 박봉석에 대한 도서관 사상의 조명과 재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가 편찬한 조선동서편목규칙을 통하여 새롭게 정립한 사항과 그 속에 숨겨진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조선동서편목규칙을 편찬하게 된 배경, 조선동서편목규칙의 구성과 특성, 조선동서편목규칙에 대한

비판과 한국목록규칙의 탄생과 변천을 살펴보고 있으며, 박봉석이 5년 동안 도서관계를 위하여 이룩한 업적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조선동서편목규칙에서 그가 새롭게 정립한 사항과 그 속에 나타난 그의 사상 및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향후 박봉석의 재평가에 필요한 참고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 2. 조선동서편목규칙의 편찬배경

박봉석은 1931년 3월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자 곧바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직원으로 들어가 도서관인의 길을 가게 된다. 도서관인이 된 그는 1945년까지 약 15년 동안 고서의 분류와 편목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도서관학에 대한 연구열이 대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습회를 수강하였다(박희영 1968, 10)고 한다. 그는 도서관에 들어간 지 8년만인 1939년 3월 일본문부성 공공도서관 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제1회 사서검정시험에 한국인 최초로 합격한 최장수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인 합격자로 1940년 4월 3일자로 조수에서 정식사서로 승급되어 총독부도서관의 서열 10위의 사서가 되고, 다시 2년 뒤인 1942년에는 아오야마 관장과 이재욱 부관장에 이어서 서열 3위의 사서로 재직하였다(원종린 1981, 11). 이때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는 동양서 목록에는 일본도서관협회가 편찬한 『화한도서목록편찬규칙(和漢圖書目錄編纂規則)』과 『화한도서목록법(안)(和漢圖書目錄法(案))』을 사용하였으며, 양서 목록에는 ALA의 목록규칙을 약간 수정한 『양서저자서명목록편찬약칙(洋書著者書名目錄編纂略

則)』을 사용하고 있었다(도태현 2003, 47; 송돈자 1985, 35).

박봉석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바로 다음날인 8월 16일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일본인으로부터 완벽하게 인수받아 8월 17일부터는 한국인 직원만으로 문헌수집대를 조직하여 귀중한 건국자료가 되는 각종 인쇄물과 출판물을 거리에 버려진 것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수집하게 하였다. 국립도서관으로서의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국내 도서관들을 일본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인수받아 해야 할 일과 당면한 여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고자 준비위원회를 발기하여 그 위원장이 되었다(오동근 2000, 13)고 한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의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8.15해방 직후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인들로부터 완전히 인수 받은 도서관을 운영할 실무자의 양성이 시급한 일 중에 하나였다. 그 당시 국립도서관의 부관장이었던 박봉석은 이재욱 관장과 협의하여 도서관학교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1946년 2월 19일 미군정당국과 도서관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를 본 후 곧바로 제1기생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1946년 3월 19일자로 정식인가를 얻어 4월 1일 ‘국립조선도서관학교’라는 교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양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역사적 개교를 하였다. 이 도서관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또 하나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수업에 필요한 우리말 교재였다. 박봉석은 도서분류법, 동서편목법, 동서편목실습, 서지학을 담당하였으며,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목록법

초안을 작성하여 등사본으로 간행하였다. 이때 초안한 동서편목법이 『조선동서편목규칙』의 제1회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말로 된 최초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송돈자 1985, 36).

국립조선도서관학회는 장기과정이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강습회가 절실하게 필요하여 1947년 4월 22일 해방 후 처음으로 국립도서관이 강습회를 주최하였다. 이 강습회에 사용할 목록법 교재는 조선도서관학회의 목록교재를 다소 정정하여 『동서편목법(강의용초안)』이란 제목의 등사본을 간행하였다. 이 등사본이 『조선동서편목규칙』의 제2초안인 셈이며, 전문이 8정175조로 되어 있고 권말에는 33개의 목록카드 견본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강의용 초안 작성에 참고한 『화한도서목록법(안)』과 『동서편목법(강의용초안)』의 목차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도태현 2003, 59; 송돈자 1985, 35-36).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규칙의 목차는 거의 동일하며, 조문수는 박봉석이 편찬한 동서편목법의 조문수가 7조 더 전개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 때문에 새로이 첨

가해야 하거나 변경하여 기술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 『동서편목법(강의용초안)』의 조문수가 7조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조문은 화한도서목록법을 그대로 역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서편목법(강의용초안)』은 일본의 도서관 입장에서 만들어진 규칙을 한국 도서관의 입장에 맞게 수정한 것이었다.

1945년 조선도서관협회가 창립되고 1947년에 개최된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에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목록규칙의 제정을 결의하였다. 이때 박봉석은 목록규칙제정위원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동서편목법(강의용초안)』을 수정 보완하여 『조선동서편목규칙』(박봉석 1948)을 편찬하게 된다. 1948년 10월에 전10장 220조로 구성된 『조선동서편목규칙』이 국립도서관에서 활자 인쇄로 초판 500부를 발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조선국립도서관 관장이었던 이재욱이 『조선동서편목규칙』 서문에서 “편자가 반 사십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애 공(巨)한 실무를 통해서 거둔 풍부한 경험과 끊임 없는 연혁(研覈)으로 얻은 확실한 이론을 기초로 해서... 세계의 도서관국인 미국의 기술적 장점

<표 1> 동서편목법(강의용 초안)과 화한도서목록법(안)의 목차와 조문수

화한도서목록법(안)-1932년	동서편목법(강의용초안)-1947년
제1 통칙(제1-4조)	제1 통칙(제1-4조)
제2 서명(제5-34조)	제2 서명기입법(제5-45조)
제3 저자명(제35-68조)	제3 저자기입법(제46-77조)
제4 출판사항(제69-103조)	제4 출판사항(제78-111조)
제5 대조사항(제104-124조)	제5 대조사항(제112-129조)
제6 카드기입법(제125-151조)	제6 서표기입법(제130-153조)
제7 배열(제152-163조)	제7 배열법(제154-170조)
제8 잡건(제164-168조)	제8 잡칙(제171-175조)
부록1 가나표기법	한자표기법
부록2 로마자 철자법	서표기입법
	33개의 목록카드견본

을 최대한으로 섭취하는 동시에 독일의 과학적 원리를 가급적 살려서 우리 국정 및 정신에 적합한 것을 만들고자 고심한 자취가 농후함을 간취할 수 있다”(박봉석 1948, 1)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규칙은 박봉석의 오랜 실무경험과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하였던 화한도서목록법과 제국대학도서관협의회안인 화한서목록 규칙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십진분류표와 함께 해방 후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2대 책자이며, 한국인에 의해 처음으로 편찬된 목록규칙이라는 점에서 한국목록의 역사적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으로 보급이 둔화되다가 1954년 9월에 6.25동란 후 처음으로 실시된 제4회 국립도서관 강습회 때부터 저자주기입의 영미계목록규칙이 교재로 사용되면서 빛을 잃게 되었지만, 1964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한국목록규칙초판(KCR1)』이 나오고 1966년 수정판이 나올 때까지 20여년 동안 사용되었으며, 그 후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동양서 목록작성에 이 규칙을 채택하고 있었다(이춘희 1984). 조선동서편목규칙은 해방 후의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큰 수확이자 도서관 역사상의 한 이정표가 되었다.

### 3. 조선동서편목규칙의 구성과 특성

#### 3.1 조선동서편목규칙의 구성

조선동서편목규칙은 총 50페이지의 인쇄본으로 그 구성 내용을 보면 첫째, 당시 조선도서

관협회장 이재욱(李在郁)이 쓴 서문이 있고 둘째, 박봉석이 직접 쓴 규칙의 편찬경위와 적용 범위가 있고, 셋째, 초학자를 위한 설명적인 기술, 부표, 용어해설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기 위한 예언(例言)이 있고, 넷째, 초학자를 위하여 목록, 편목, 서목, 서표, 표목, 주기 등 21개의 용어를 수록 설명하고 있다. 이들 용어 중에는 박봉석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도 있다. 동서(東書), 서서(西書) 등과 함께 편목(編目)과 서표(書標)는 박봉석이 창안한 용어이다. 다섯째, 220개의 조문세목이 제시되어 있다. 조문세목은 규칙조문의 목차와 같은 것으로서 편목규칙 조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여 220개의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12.5cm×7.5cm의 표준카드가 도시되어 있다. 일곱째, 표준카드의 실예가 있고, 여덟째, 부표 I(附表)로 28종의 서표기입법과 약어표, 국명표, 한자자표기법, 일본문자표기법, 동서역대 간지연표와 그 다음에 동서역대간지연표, 년기환산표, 간지세양세음표, 중국연호색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목차를 보면 <표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조선동서편목규칙』은 『동서편목법(강의용초안)』보다 장 절의 구분과 배열이 세분되고 제1장 범위 및 효용, 제7장 부주사항, 제8장 사무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부표 제5 일본문자표기법과 제6 동서연대간지연표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조선동서편목규칙을 원종린이 “본 규칙의 다양하고 치밀한 편찬은 마치 목록업무를 위한 백과사전을 대하는 느낌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도서관인이 이토록 치밀한 배려를 한 사람이 있을 런지 의심스럽다.”(원종린 1981, 47)고 했듯이 박봉석이 직접 오

〈표 2〉 조선동서편목규칙의 목차

서(序)	제7장 부주사항
예언(例言)	제8장 사무사항
용어해의(用語解義)	제9장 서표기입법
조문세목(條文細目)	제10장 서표배열법
규칙조문(規則條文)	부표 제1 서표기입예
제1장 범위 및 효용	제2 약어표
제2장 총칙	제3 국명표
제3장 서명	제4 한자표기법
제4장 저자	제5 일본문자표기법
제5장 출판사항	제6 동서연대간지연표
제6장 대조사항	

랜 기간 편목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했던 불편 사항에 근거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규칙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동서편목규칙은 서명목록과 저자명 목록을 병용하게 되어 있으며, 두 목록을 양립하게 된 규칙이기는 하지만 서명목록이 주가 되어 있으므로 서명주기입의 목록규칙으로 동양의 전통을 따른 것(송동자 1985, 51)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박봉석이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15년 동안 주로 고서 편목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 3.2 조선동서편목규칙의 특성

1948년 10월에 한국 최초의 목록규칙인 『조선동서편목규칙』의 예언에 박봉석이 직접 제시한 주요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박봉석 1948, 2).

첫째, 본 규칙은 1947년 5월에 협회 총회 때에 전국통일목록규칙제정안을 결의하고 그 위원을 선임하였던바 편자도 일원이 되어 기초한 것이다.

둘째, 국립도서관학교의 교재로 쓰던 『동서편목법』을 기초로 하고, 전체적으로 개편하였다.

셋째, 본 규칙은 동서에 한한 것으로서 서명 목록과 저자목록을 병행적으로 편찬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넷째, 본 규칙은 초학자를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설명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기억의 편의를 위하여 장절에 따라 조문을 중복케 한 곳도 다소 있다.

다섯째, 역시 초학자를 위하여 예와 부표 등을 첨부하였으며 각 조문의 주요한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상과 같은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찬한 『조선동서편목규칙』은 그 당시 국립도서관학교의 교재였던 동서편목법을 기초로 동양의 전통적인 서명주기입방식으로 된 전국통일의 편목 규칙이었다. 특히 박봉석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처음 목록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조선동서편목규칙의 비판

1950년 6.25동란 이후 미국의 도서관학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도서관계에 가장 큰 변화를 준 분야의 하나로 목록분야를 들 수 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추세는 저자명주기입의 영미계 목록규칙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에 편승하기 위하여 서명주기입방식을 채택한 조선동서편목규칙과 다른 저자주기입방식의 목록규칙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다.

한국목록규칙 초판(KCR1)의 편찬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장일세는 “박봉석의 조선동서편목규칙이 광복이후 우리나라의 각급 도서관을 위한 목록규칙이었지만, 가장 큰 결함은 목록규칙의 세계적인 조류를 완전히 도외시한데 있다”(장일세 1975, 38)고 비판하였다. 그 당시 세계적인 동향은 저자명주기입방식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봉석은 서명주기입방식을 택하였다. 1961년 ICCP에서 국제적 목록기입의 통일안이 채택되기 전까지 세계의 전통적인 목록기입방식을 크게 세 가지 서명주기입의 중국계, 저자주기입의 독일계 및 영미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일세는 “박봉석이 서명주기입방식을 택한 이유를 일제말기에 있어서의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전연 이루어지지 못하여 목록규칙의 세계적인 조류나 동향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장일세 1974, 47)라고 비판했으나, 이재철은 “서명주기입이 목록발달상 저자주기입보다 한걸음 더 발달한 형태이며, 목록이론상 저작에의 직접 접근책이란 점에서 저자명을 한 단계 거처서 간접적으로 저작에 접근하는 서양의 저자주기입보다 우위에 선다”(이재철

1975, 299)고 하였다.

장일세는 조선동서편목규칙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그 당시의 상황을 “첫째, 1961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주최로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채택한 목록원칙을 우리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점, 둘째, 그 당시까지 쓰여 오던 박봉석에 의한 동서편목규칙으로서는 더 이상 현대적인 목록작성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장일세 1974, 48)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저자명주기입방식의 영미계목록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일부목록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도서관협회는 국제적 추세를 따른다는 명분을 세워 영미계목록규칙의 저자명주기입방식을 받아들인 새로운 목록규칙을 제정하기로 결정한다. 그 당시 박봉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의 기회도 없이 전국통일의 편목규칙으로 제정된 조선동서편목규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5. 한국목록규칙의 탄생과 변천

한국목록규칙(KCR)을 폐내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미국식 도서관학교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저자명주기입방식의 영미계목록법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서명주기입방식의 조선동서편목규칙이 점점 그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그 다음 이유는 1961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주최로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채택한 목록원칙을 우리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었다는 점과 그 당시까지 쓰여 오던 박봉석에 의한 동서편목규칙으로서는 더 이상 현대적인 목록작성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장일세 1974).

이러한 이유로 그 당시 도서관협회는 국제적 추세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서명주기입의 조선동서편목규칙이 아닌 영미계목록규칙을 본받아 이른바 저자주기입의 목록규칙을 제정하여 1964년에 『한국목록규칙 초판(KCR1)』을 발행하게 된다. 초판 발행 후 2년 뒤 1966년에 초판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자주기입방식의 수정판을 발행하였다. 한국목록규칙 수정판(KCR2)이 발행되자 동서편목규칙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목록의 전산화작업으로 인하여 서구의 학자들이 저자주기입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게 된다. 1970년대 들어오자 마침내 기본기입의 표목없이도 도서의 서지적 식별이 가능한 목록기입법인 『국제표준서지기술법: 단행본(ISBD(M))』을 1974년에 펴내게 된다. ISBD(M)은 도서의 제일가는 식별요소를 서명으로 삼고 항상 서명을 기술의 맨머리에 적고 저자표시를 나중에 적는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조선동서편목규칙처럼 동양의 전통적 서명주기입법과 일치하는 목록기입법으로 변한 셈이 되었다. 종래의 전통적인 편목방식인 서명주기입방식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이를 부흥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동양의 전통적 서명주기입에 대한 재인식과 국제적인 목록이론의 추이를 감안하여 KCR2를 수정하게 된다. 박봉석이 편찬한 『조선동서편목규칙』의 비판과 함께 저자주기입방

식의 한국목록규칙이 제정된 지 19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서명을 먼저 적고 저자표시를 뒤에 적는 ISBD의 기술원칙을 받아 들여 『한국목록규칙 제3판(KCR3)』을 1983년에 발행하였다. 이는 ISBD에 근거하여 편찬된 것이며, 우리의 전통적 서명주기입방식과 비슷한 서지기술을 유니트카드로 삼아 목록기입을 하는 방식, 즉 도서식별의 구실을 하는 기술부와 검색의 실마리 구실을 하는 표목부를 각기 독립시키는 목록기입방식을 채용하였다. KCR3는 저자명주기입방식의 KCR1과 KCR2와 다르게 동서전용목록규칙에서 동서와 양서 공용의 목록규칙이다(한국도서관협회 1983, 6). 1990년에 KCR3를 도서관과 도서관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발견되고 지적된 오자와 탈자 그리고 내용의 오류와 고쳐야 할 부분을 원판의 지형을 별로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정하고 수정하여 KCR3.1판을 발행하였다. KCR3과 KCR3.1은 서명을 먼저 기술하고 저자표시를 뒤에 기술하는 서명주기입방식의 조선동서편목규칙과 유사한 목록규칙이다. 만일 박봉석이 행방불명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저자주기입방식에 의한 KCR1이 제정되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재철은 “서명주기입은 목록발달사상 저자주기입보다 한 걸음 더 발달된 기입형태이며, 저작에의 직접 접근책이란 점에서 목록이론상 간접적으로 저자명을 한 단계 거쳐서 저작에 접근하는 영미계목록을 위시한 서구의 저자주기입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라고 우리는 재평가 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83, 6)고 하였다. 그러나 저자주기입보다 우위에 있는 서명주기입방식의 조선동서편목규칙이야 말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사회의 전통으로 내려온 저자주기

입방식에 밀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조선동서편목규칙의 서명주기입방식이 오늘날 목록규칙에 도입되어 있다는 것은 KCR1과 KCR2의 편찬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박봉석은 직접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15년 동안 고서의 편목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편목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규칙으로 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서명주기입방식의 목록기술법이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한국도서관협회 2003)을 비롯하여 오늘날 목록규칙에 도입되고 있다. 조선동서편목규칙, 한국목록규칙초판(KCR1)과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

의 기술규칙에 관한 목차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조선동서편목규칙, KCR1과 KCR4의 기술규칙에 관한 목차를 비교해 본 결과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동서편목규칙은 표목과 기술의 구별이 없지만 KCR1에서는 표목과 기술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KCR4는 조선동서편목규칙과 유사하게 표목에 관한 규정이 없이 기술에 대한 규정만을 제정하고 있다.

둘째, 조선동서편목규칙은 부표에 제시된 예시와 각조문의 관계를 연결하여 목록담당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목록업무를 처리할 수

<표 3> 조선동서편목규칙과 KCR1, KCR4의 목차비교

조선동서편목규칙	한국목록규칙 초판(KCR1)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
제1장 범위 및 효용	제1장 표목의 선정	제0장 총칙
제2장 총칙	제2장 표목형식	제1장 기술총칙
제3장 서명	제3장 기술목록규칙	1.0 총칙
제4장 저자	A. 단행본	1.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제5장 출판사항	I. 서명	1.2 판사항
제6장 대조사항	II. 저자표시	1.3 자료특성사항
제7장 부주사항	III. 판차	1.4 발행사항
제8장 사무사항	IV. 권수사항	1.5 형태사항
제9장 서표기입법	V. 출판사항	1.6 총서사항
제10장 서표배열법	VI. 출판지	1.7 주기사항
부표 제1 서표기입예	VII. 출판자(발행자)	1.8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제2 약어표	VIII. 출판년	
제3 국명표	IX. 대조사항	
제4 한자표기법	X. 도판, 표, 십도류	
제5 일본문자표기법	XI. 크기	
제6 동서연대간지연표	XII. 장정	
	XIII. 주기사항	
	XIV. 총서주기	
	XV. 합철 또는 합각에 관한 주기	
	XVI. 속편주기	
	XVII. 학위논문주기	
	XVIII. 내용주기	
	XIX. 부출지시	
	XX. 분출기입	

있도록 되어 있지만, KCR1은 각 조항아래에 예를 들고 있지만 너무나 간략하여 목록담당자들의 이해가 용이하지 않다. KCR4에서는 KCR1보다 자세하게 예를 제시하여 목록담당자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조선동서편목규칙은 규칙에 사용된 용어의 해설을 수록하여 목록담당자들이 규칙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지만, KCR1에는 용어해설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규칙의 이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KCR4에서는 용어해설을 수록하여 목록담당자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조선동서편목규칙에는 KCR1과 KCR4에 없는 규칙으로 제8장 사무사항과 제10장의 서표배열법이 있다. 사무사항은 사무용목록의 기술사항이고, 서표배열법은 목록카드의 배열방법의 규칙을 의미한다. 카드목록은 배열에 착오가 생기면 목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목록카드의 배열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 통일성을 유지하여 같은 표목의 카드가 한곳에 모여야 검색이 용이하게 된다. 카드배열에 관한 규칙은 카드목록시대에 필요한 규칙이므로 기계가독형목록시대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KCR4에서는 카드배열에 관한 규칙이 필요 없다.

다섯째, 조선동서편목규칙에 없는 부출지시와 분출기입에 관한 사항이 KCR1에 제시되어 있다. 부출지시는 기본표목을 제외한 공저자, 역할이 다른 저자, 서명, 총서명, 주제명 등에 대한 2차적 목록의 종류를 밝혀 기입하는 사항을 의미하며, 분출기입은 합집이나 총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의 저작들의 서명과 저자명을 표목으로 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출지시와 분

출기입은 카드목록시대에 필요한 규칙이므로 KCR4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규칙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동서편목규칙과 KCR1과 KCR4의 차이점은 그 시대적 환경에 따라 규칙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편찬된 조선동서편목규칙과 KCR4가 동일하게 서명주기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서관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최초의 편목규칙으로서 서명주기입의 편목방식을 성문화한 조선동서편목규칙과 박봉석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개혁을 위하여 옛것을 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통과 특성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6. 박봉석의 업적과 사상

### 6.1 도서관인으로서의 업적

1905년 8월 22일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박봉석이 도서관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31년 3월에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직원이 되면서부터이다. 그가 한국의 도서관계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일한 시기는 1945년 8.15해방부터 1950년 6.25전쟁직후까지 약 5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박봉석이 남긴 업적을 “원종린의 석사학위논문인 『박봉석의 도서관사상 연구: 그의 업적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 오동근이 엮은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송돈자의 석사학위논문인 『조선동서편목규칙 연구』, 박희영의 『한국의 도서관과 박봉석』, 한국

도서관협회의 『문화훈장 후보자 추천서』” 등을 기초자료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7월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문화훈장 후보자 추천서에 제시한 박봉석의 공적요지를 보면(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도서관계의 선구적인 인물로 1945년 해방직후부터 국립도서관 부관장, 조선도서관협회 초대위원장, 국립도서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조선십진분류표’, ‘동서편목규칙’ 등의 개발·보급, 전문인력양성, 독서진흥운동 전개 등 우리나라 도서관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도서관계를 위하여 그가 수행한 세부공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첫째, 해방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남아있던 한국인 직원들과 ‘도서관수호문헌수집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실무적으로 일 본인들로부터 총독부도서관을 인수하고 이를 안전하게 수호하여 새로운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다졌다.

둘째, 해방직후의 혼란스런 와중에 간행되는 각종 귀중한 인쇄자료와 출판물을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헌수집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셋째, 해방당시 한국도서관계의 여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조선도서관협회의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맡아 봉사하였으며 초대위원장으로 도서관협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개관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도서관이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초대 부관장으로 도서관발전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해방직후 도서관의 부족한 전문인력

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도서관학교를 설립하여 교수로서 도서분류법, 도서편목법, 서지학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주요 표준교재들을 개발·보급하는 등 후진양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여섯째, 해방이후 활동이 미미했던 도서문화 및 서지학 연구의 진흥을 위해 국립도서관장 이재욱 등 국내의 서지학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조선서지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학회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상무위원으로 학회활동에 기여하였다.

일곱째, 한국인 최초로 도서관의 필수적인 도서정리도구인 근대적인 분류표를 개발·보급시켜 도서관의 업무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가 개발한 조선십진분류표는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사용되었던 최초의 현대적인 분류표였다.

여덟째, 한국인 최초의 또 하나의 도서관의 필수적인 정리도구인 근대적인 편목규칙을 개발·보급시켜 도서관의 정리업무의 표준과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의 조선동서편목규칙 역시 최초의 현대적인 편목규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홉째, 1군 1도서관 갖기 운동, ‘도서관’이라는 제목의 이동현상작문 모집 등의 도서관확장 및 독서진흥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해방기의 독서문화증진에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이 박봉석이 도서관계를 위하여 수행하였던 세부공적내용에서 주요활동과 공적사항을 살펴본 결과 박봉석은 해방 후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개척자적 정신으로 헌신적인 공헌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부공적내용에서 주요활동과 공적사항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박봉석의 주요활동과 공적사항

기 간	주요활동 및 공적사항
1945. 08	총독부도서관의 도서관수호문헌수집위원회 위원장
1945. 08	문헌수집대 조직, 주요자료수집활동
1945. 09	조선도서관협회 결성 초대위원장
1945. 10	국립도서관 개관준비 및 초대 부관장
1946. 04	국립도서관학교 설립 교수로 후진양성(사서양성교육)
1947. 08	조선서지학회 창립
1947. 11	조선심진분류표 개발(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분류표)
1948. 10	조선동서편목규칙 편찬(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편목규칙)
1948.	도서관확장운동 및 독서진흥운동 전개

## 6.2 박봉석의 사상

박봉석은 국립도서관 부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인물이며, 그 후의 행적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고 불투명하다. 원종린이 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박봉석의 생애를 조명하기 위하여 박봉석의 출생지에 호적조회와 초·중등학교에서 중앙 불교전문학교까지의 학적부를 조사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그의 성격은 성실, 근면, 겸손하며 내향성, 사교성, 강한 책임성이 있으며, 강한 민족의식의 소유자였다”(원종린 1981, 4)고 되어 있다. 또한 『국사정해』라는 한국사를 저술할 정도의 역사의식도 강했으며, 특히 불교철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 국립도서관학교 교수시절에 철학 강의를 즐겨하였다고 한다.

원종린은 우리 도서관계의 선구자와 개척자이며, 우리 도서관계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도서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Melvil Dewey와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Melvil Dewey에 관한 기억은 항상 나를 고무 격려해 준다. 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풍부한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다. 직감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유토피아의 언덕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모든 기억을 통해서 나는 위대한 인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 도서관계의 선구자 박봉석 부관장에게 바치고 싶다.”(원종린 1981, 34)고 하였다.

국립도서관의 동서과장으로 재직했던 박희영은 “한국 도서관계의 선구자적인 도서관학자로 이재욱, 박봉석, 김진섭 3인을 얘기하면서, 이들 중 박봉석의 공로가 가장 크다고 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7월 13일 선생이 납북되던 날까지 만4년 11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을 남겨 놓았다며 그 초인적인 성과에 경탄하였다”(박희영 1968, 13)고 하였다. 남태우는 2012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박봉석은 도서관수집대를 구성한 것은 프랑스의 Gabriel Naudé와 같고, 그의 편목법은 영국의 Sir Anthony Panizzi와 미국의 Charles A. Cutter 같으며, 분류법과 도서관교육에 대한 열정은 Dewey와 Ranganathan과 동격이며, 사서로서 사명은 Naudé와 Gottfried W. Leibniz와 같다”(남태우 2012, 37)고 했다. 이렇듯 그 당시 박봉석은 우리 도서관계의 대들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도서관계의 선구자로서 대들보 역할을 하였던 박봉석이 5년 동안 수행한 업적 속에 나타난 그의 정신과 사상을 보면 첫째, 그가 편찬한 분류표와 편목규칙의 표제에도 나타나 있듯이 강한 민족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해방과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국립도서관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조선십진 분류표와 조선동서편목규칙을 편찬하여 전국 도서관이 통일된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도서관인으로서 그의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 투철한 직업의식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인으로부터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인수하자 곧바로 국립도서관학교를 설립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양성교육을 시작할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도서관협회와 서지학회를 결성한 것은 도서관인들의 단결된 결속력과 화합을 원했던 그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인 박봉석이 우리 도서관계에 남겨준 그의 사상과 정신의 근본은 우리 도서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인본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조선동서편목규칙에서 정립한 사항

전국 도서관의 통일된 편목규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선동서편목규칙을 통하여 박봉석이 새롭게 정립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대에 사용되던 용어를 우리나라

에 맞게 수정하였다. 서양서적에 대칭되는 용어로 화한도서(和漢圖書) 또는 화한서(和漢書)라고 했던 용어를 동서(洞書) 또는 동양서(東洋書)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최초로 편목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목록과 편목을 분리시키고 있었다. 정필모는 “목록을 작성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규칙이기 때문에 목록규칙이란 용어가 좀 불합리하며, 중국이나 한국의 관례에 따라서 편목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정필모 1974, 6)고 하였듯이 목록은 목록작성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고, 편목은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목록규칙보다 편목규칙이라는 용어가 합리적이다.

셋째, 서명주기입방식을 도입하였다. 『조선동서편목규칙』을 제정할 당시 이미 저자명주기입의 영미계 목록규칙의 사용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서명주기입방식을 채택한 것은 편목업무의 오랜 경험과 동양서의 경우 저자명보다 서명의 식별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박봉석의 뛰어난 식견이었다고 생각된다.

넷째, 초학자를 위하여 28장의 목록카드의 실제 예를 <표 5>(박봉석 1948, 31)와 같이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조문으로 참조 표시를 하여 연결되도록 하여 쉽게 이해하고 목록작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다섯째, 용어해설을 수록하였다. 각조문의 사용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하여 그 뜻을 간단하게 설명함으로써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여섯째, 특히 개개 도서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구비하여야 할 목록의 종류와 그 편성체계

〈표 5〉 基本書票[事務用書名西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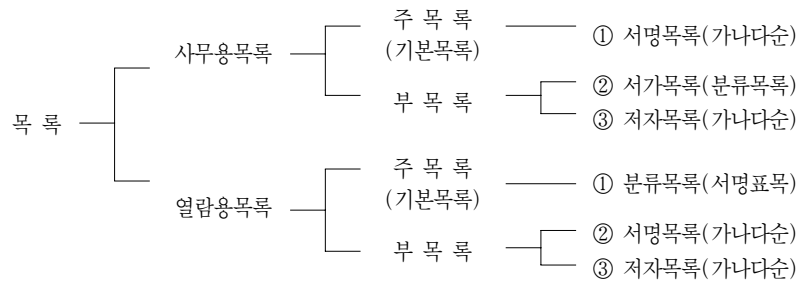
조선사	朝鮮史話集 三國·高麗時代篇	此書票는第9,180- 185, 200條에 依하여 記入함. 出版地(京城)는 第115條, 發行所는 第119條, 刊年 은 第121條 各各 參照 02548=登錄番號 78.8.15=購入年月日(檀紀4278 年8月15日) ₩150=購入價格 文藝書林=購入書店 조선사=標記
2105 1 02548 78.8.15 ₩150 文藝書林購入	李殷相 著 京城 漢城圖書 4277 2版 1冊 洋裝 小 346매 圖17枚	

를 편목규칙 제2장 총칙 제5조에 〈표 6〉(박봉석 1948, 8)과 같이 규정하고 배열방법까지 명시하여 효율적인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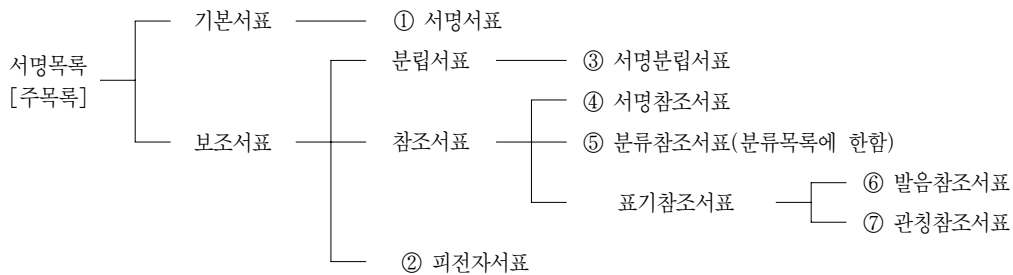
또한 총칙 제6조에 “서명목록은 서명을 표목

으로 하는 각종 서명서표로써 구성하고, 가나다순으로 배열함”(박봉석 1948, 8)이란 설명과 함께 목록의 종류와 그 조직을 〈표 7〉과 같이 제시하여 서명주기입방식을 성문화하여 필요한 목록구성의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목록의 종류와 그 편성체계



〈표 7〉 서명서표의 종류와 그 조직



〈표 6〉, 〈표 7〉과 같이 목록의 종류와 그 편성체계, 배열법 등을 규칙에 조항으로 성문화함으로써 그 당시 도서관 목록편성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기술사항에 부출지시사항을 기술하지 않고 도서의 종류에 따라 작성해야 할 목록의 일정한 형식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여덟째, 규칙에는 없지만 통일을 기해야 하는 사항들을 권말에 부표로 첨부하고 있다. 특히 동양서가 갖는 연기(年紀)의 특성과 목록작성에 필요한 약어, 국명, 한자어표기, 그리고 일본문자표기법 등 6개의 부표가 권말에 첨부되어 있다. 이것은 박봉석이 총독부도서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편목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하였던 불편사항을 후배 사서들이 겪지 않도록 세세하게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8. 결 론

박봉석이 ‘조선동서편목규칙’을 통하여 우리 목록분야에 정립한 사항과 도서관인들에게 남긴 사상과 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에 의해 처음으로 편찬된 목록규칙이라는 점에서 한국목록의 역사적 큰 의의를 갖는다. 그 당시 조선국립도서관 관장이었던 이재욱이 조선동서편목규칙 서문에서 “편자가 반사십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공한 실무를 통해서 거둔 풍부한 경험과 끊임 없는 연혁으로 얻은 확실한 이론을 기초로 해서... 세계의 도서관국인 미국의 기술적 장점을 최대한으로 섭취하는 동시에 독일의 과학적 원리를 가급적 살

려서 우리 국정 및 정신에 적합한 것을 만들고 저 고심한 자취가 농후함을 간취할 수 있다”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규칙은 박봉석의 오랜 실무경험과 기존의 목록규칙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양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록규칙으로서 목록의 종류와 그 편성체계, 배열방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초학자들도 목록의 구성방법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서명목록을 주목목으로 확정하고 이를 부목목과 구별함으로써 서명주기입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셋째, 목록에 사용되는 용어와 그 의미를 정리하여 규칙 속에 성문화해 줌으로서 초학자들도 규칙의 이해를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최초로 편목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목록은 목록작성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고, 편목은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목록규칙이 아니라 편목규칙이라고 했다.

다섯째, 특히 그 당시 영미계 목록규칙의 서명주기입원칙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서명주기입방식의 규칙을 제정한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식견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권말에 카드작성의 실제 예를 수록하고 관련된 조문을 참조하도록 명시하여 목록작성시 의문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해방 후 열악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도서관의 합리적 장서정리를 위하여 세세하게 신경 쓴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박봉석은 해방과 전쟁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을 위하여 헌신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조선동서편목규칙

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의 사상과 정신은 인본주의 철학에 근거한 배려하는 마음과 도서관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직업의식, 사명감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너무나 열악하고 혼란스러웠던 환경에서 우리 도서관계를 위한 마음과 도서관인을 배려하고자 하였던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세세한 편목규칙을 편찬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박봉석이 1945년 8.15해방부터 1950년 6.25 동란까지 불과 5년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기여한 업적은 미국의 듀이와 인도의 랑가나단과 비교될 만큼 훌륭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국가 및 세계 도서관계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박봉석은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선생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도서관계의 근·현대의 역사를 잘 기록하여 후대에 계승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남태우. 2012. 『도서관인 용재(榕齋) 박봉석 생애 조감』. “박봉석 도서관 사상 조명” 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1-38.
- 도태현. 2003.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박봉석. 1948. 『조선동서편목규칙』. 서울: 국립도서관.
- 박희영, 정병완, 신학균. 1970. 『국립중앙도서관 사에 관한 연구』. 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보고서. 인문학계2.
- 박희영. 1968. 한국의 도서관과 박봉석. 『도서관』, 127(7.8합): 8-17.
- 송돈자. 1985. 『박봉석의 동서편목규칙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동근 엮음. 2000.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대구: 태일사.
- 원종린. 1981. 박봉석의 도서관사상 연구: 그의 업적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 『도서관연구』, 22(1): 3-52.
- 원종린. 1981. 『박봉석의 도서관사상 연구: 그의 업적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재철. 1975. 한국자료의 서지적 정리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협월보』, 16(10): 9-12.
- 이재철. 1982. 한국목록규칙 3판의 편찬보고: KCR3의 특성에 중심하여. 『도협회보』, 23(6): 2-4.
- 이춘희. 1984.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정리 현황과 그 방향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60주년 기념논문집).
- 장일세. 1974. 한국 목록의 현황과 그 장래. 『도서관』, 29(6): 38-42.
- 장일세. 1968. 『한국목록규칙해설』. 서울: 한국

- 도서관협회.
- 정필모. 1974. 한국목록규칙의 문제점과 그 개정의 전제. 『도서관』, 29(6): 5-12.
- 한국도서관협회. 2003. 『박봉석 문화훈장 추천서』. 한국도서관협회 편. 1964. 『한국목록규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편. 1966. 『한국목록규칙』. 수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편. 1983. 『한국목록규칙』. 3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편. 1990. 『한국목록규칙』. 3.1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편. 2003. 『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